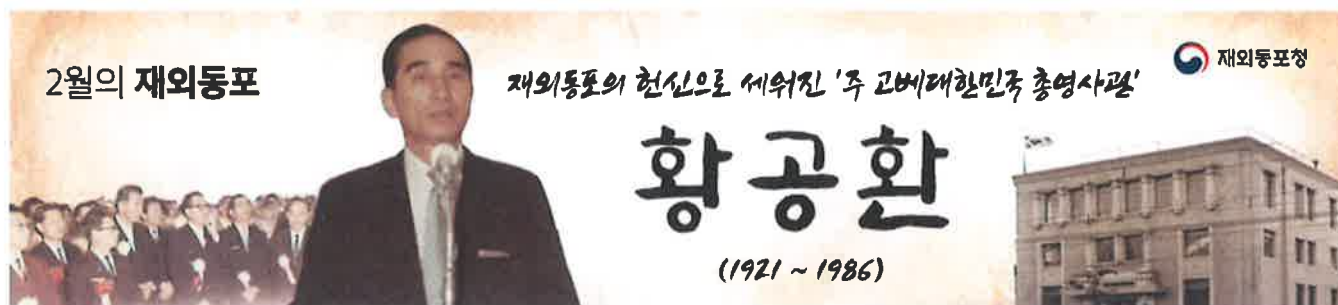


「在外同胞の献身で建てられた駐神戸大韓民国総領事館」

在外同胞庁、2026年2月「今月の在外同胞」に

故・黄孔煥理事長を選定



□在外同胞庁は2026年2月の「今月の在外同胞」に日本・神戸地域在外同胞社会を引っ張り、駐神戸大韓民国総領事館の庁舎寄贈を主導し、在外同胞の權益とわが国の経済発展に寄与した故・黄孔煥（1921～1986）前神戸商銀理事長を選定した。

□在外同胞が力を合わせて建てた外交拠点

- 黄孔煥理事長は1960年に駐神戸大韓民国公館の屋舎建立委員会委員長を務め、地域の在日同胞とともに公館建立のための募金運動をリードした。委員会は地域在日同胞たちに募金を依頼し、みんなが少しずつ出し合うことで1965年までに約3500億円を集め、明治時代に有名旅館として使われていた建物と土地を購入した。
- その後1967年8月、委員会は該当建物と土地を大韓民国政府に寄贈し、その建物は現在まで駐神戸大韓民国総領事館として使用されている。これは単なる不動産の寄贈を超えて、在日同胞が自ら母国とつながる「民族的な拠点」を築いたという点で大きな意味がある。

□在日同胞社会と母国を共に思う実践

- 黄孔煥理事長は在日同胞の權益と母国の発展のために惜しみなく支援した。
- 彼は在日同胞が共に集まりつながりあえる空間が必要だと判断して「在日韓国人会館」設立を進め、個人的に6千万円を寄付して設立に寄与した。

- また大韓民国警察に125ccオートバイ15台を寄贈し、本人の故郷である慶尚北道善山郡に農機具を贈るなど、母国の厳しい状況に目を背けることなく実質的な支援を送った。
- 1988年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成功的な開催のためには組織委員会に1億円を寄付し、母国が国際行事を成功的に行えるよう支援した。

□在外同胞の経済基盤と韓日交流の拡大に寄与

- 黄孔煥理事長は神戸地域を中心に観光企業「ミリオン観光」株式会社を設立して成功的に運営し、民族金融機関である「商銀」の理事長になり、在日同胞の生活安定や事業活動を支援した。
- 彼は1981年に僑民銀行の設立発起人に参与し、1982年「新韓銀行」の設立過程にも力を注いだ。これにより在外同胞持ち分が母国の金融の発展につながることに寄与した。また韓日経済協会幹事、韓日友好親善協会副会長などを歴任し、韓日間の経済交流と友好関係を広める役割も果たした。
- こうした功労を認め、政府は1986年に彼に国民勲章ムグンファ勲章を授与した。

□「在日同胞が作った今日の大韓民国」

- 金炅俠（キムギョンヒョプ）在外同胞庁長は「黄孔煥理事長は在外同胞が単なる海外居住国民を超えて、大韓民国の外交・経済・共同体の形成に直接寄与し得ることを示した人物」であり、「彼の献身と選択が今日の在外同胞政策の意味を再度、認識させてくれている」と述べた。
- 在外同胞庁は今後も在外同胞社会の献身と寄与を国民とともに共有し、在外同胞が大韓民国と共に成長する同伴者であることを示す政策を続けていく計画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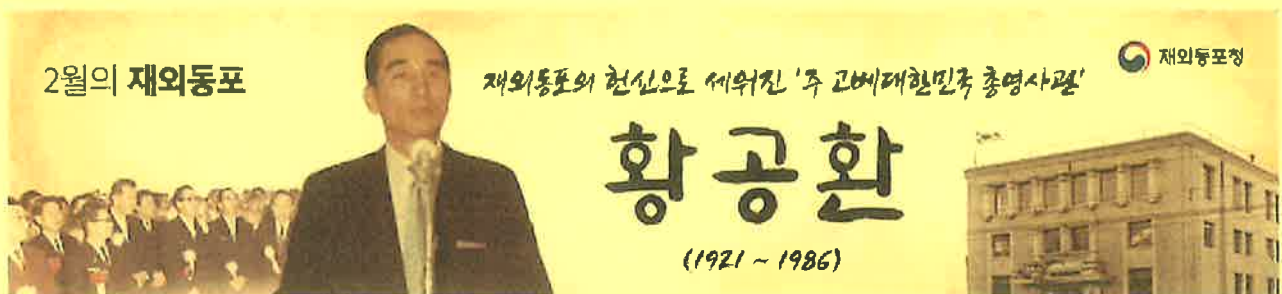
보도시점 2026. 2. 13.(금) 0시 배포 2026. 2. 10.(화) 10시

※ 엠바고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의 헌신으로 세워진 '駐고베대한민국총영사관'

- 재외동포청, 2026년 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황공환 이사장 선정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일본 고베 지역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며 '駐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청사 기증을 주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故 황공환(1921-1986) 前 고베상은 이사장을 선정했다.

□ 재외동포가 힘을 모아 세운 외교 거점

- 황공환 이사장은 1960년 '주 고베 대한민국 공관 옥사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 재외동포들과 함께 공관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이끌었다. 위원회는 지역 재외동포들의 모금을 독려하여 십시일반으로 1965년까지 약 3,500만 엔을 모금하였고, 메이지 시대 유명 료칸으로 사용되던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 이후 1967년 8월, 위원회는 해당 건물과 토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했으며, 이 건물은 현재까지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기증을 넘어, 재외동포들이 스스로 모국과 연결되는 '민족적 거점'을 일궈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재일동포 사회와 모국을 함께 생각한 실천

- 황공환 이사장은 재일동포들의 권익과 모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였다.
- 그는 재일동포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일한국인회관’ 설립을 추진했으며, 개인적으로 6천만 엔을 기부해 설립에 기여했다.
- 또한 대한민국 경찰에 125cc 오토바이 15대를 기증하고, 본인의 고향인 경북 선산군에 농기구를 전달하는 등 모국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보냈다.
-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1억 엔을 쾌척하며, 모국이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재외동포 경제 기반과 한·일 교류 확대에 기여

- 황공환 이사장은 고베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기업 ‘미리온 관광’주식회사를 설립해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민족금융기업인 ‘상은’ 이사장을 맡아 재일동포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활동을 지원했다.
- 그는 1981년 교민은행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1982년 ‘신한은행’ 설립 과정에도 힘을 더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 자본이 모국 금융 발전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한일경제협회 간사, 한일우호친선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일간 경제 교류와 우호 관계를 넓히는 역할도 했다.
-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정부는 1986년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 “재일동포가 만든 오늘의 대한민국”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황공환 이사장은 재외동포가 단순한 ‘해외 거주 국민’을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공동체 형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

음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그의 헌신과 선택이 오늘날 재외동포 정책의 의미를 다시 일깨우게 한다.”고 밝혔다.

-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의 헌신과 기여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임을 알리는 정책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2026년 2월 ‘이달의 재외동포’ 항공환 상세 자료 1부.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곽삼주 (032-585-3154)
		담당자	주무관	우지연 (032-585-3161)

